

일반인 대상 '시간제 학생 등록'

140학점 취득시 학사 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학교육 기회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대학을 다니지 못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간제학생 등록을 실시한다.

지난 달 20일 교육부가 시행 지침을 확정해 희망대학 63개교 중 교사확보율 85%이상, 교수 1인당 학생 수 42명 이하인 13개 대학(대학8, 개방대1, 전문대4)을 선정했으며,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 한해 야간학부만을 등록하게 한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학교는 5개 야간학부에 28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부와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의 이학부 5명, 지리학과 5명, 법학부 10명, 수원캠퍼스의 러시아어학과와 사회과학부 8명이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 가능하다.

오늘과 내일부터 양캠퍼스 입학관리과에서 원서교부와 접수를 실시하며 원서대와 전형료는 각각 2천원, 3만원이다. 합격자는 오는 10일 본관(서울캠퍼스)앞에서 발표하며 서

학내 개보수공사 마무리

지난 겨울방학동안 학내 보수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크라운관을 제외한 공사들은 이미 완결된 상태이다.

지난 11월 전체 개보수공사에 들어갔던 서울캠퍼스 중앙

류전정 및 면접고사를 통해 선 발한다.

수강신청은 교육부 방침의 학기당 6학점이하로 제한하며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한 학생이 35학점이상 취득할 경우 2학년 학사편입이 가능하며 70학점이상 취득시는 3학년 학사편입이 가능하다.

(최진원 기자)

도서관 공사는 220V 송암공사, 천정 설치공사 및 도색공사를 끝내 지난 2월 21일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동아리방 환경을 개선교자 작공에 들어갔던 학생회관 전체 개보수공사는

지난 1월 10일 공사를 끝마쳐 현재는 학생들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난방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국선관 개보수 공사는 착공 3개월만인 지난 1월 20일 마무리 지어졌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크라운관의 내장 인테리어 공사는 오는 3월말경에 공사가 끝날 예정에 있으며 현재는 다목적 홀의 용도로 쓰이게 될 크라운관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밖에도 법대 강의실 공사 및 도색공사가 끝난 상태이며 각 단대 학강실 또한 환경개선 공사가 마쳐졌다.

학생차량 자대앞만 주차가능

정문~자대간 셔틀버스 10분간격 운행

오늘부터 수원캠퍼스 학생차량은 자연대 앞 종합주차장에 서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주차관리는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 및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며 학기중 자연대 주차장과 정문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배치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과는 교직원 전용주차장 및 주차장 금지구역등

의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차와 미등록차량에 대해 강력 스티커를 부착해 할 방침이다.

의학계열 편입 개방

유급제적 입학가능

학칙이 새로 개정되어 이번 학기부터 학사행정에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다.

졸업 논문작성도 2개를 해야 하며 학점 관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교무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교육개혁 추진사업"임을 밝혔다.

김건수 1년 6개월 선고

지난 2월 11일 서초지방법원에서 열린 경기인천지역 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김건수(화공 4)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선고가 내려졌다.

김군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족청년학생연합'가입,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1차공판에서 5년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13일 이주대에서 개최된 경인총련 중앙위원회에서 우리학교 이병연 총학생회장이 임시 경인총련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예비수강신청 성과 없어

수강신청정정 15일까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된 '예비수강신청'이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영대 학적과장은 "전체 학생들의 70% 이상이 예비수강신청을 했어야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었으나 30~40%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처음 실시된 예비수강신청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전과장은 "선호학과로의 집중현상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2학기부터는 수강신청을 여름방학에 실시하지 않고 1학기 중간고사를 전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기의 수강신청정정은 15일까지 가능하다.

□ 의사국가고시 수석합격자 장현하(의학 97년졸)양

“어린시절 꿈 이뤄 기뻐요”

인터뷰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서 전국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장현하(의학과 97년 졸)양. 신앙심이 힘든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장양은 교내 기독교동아리 CMF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독실한 크리스찬. 폐렴을 앓던 동생이 소아과 여의사의 헌신적인 진료로 완치된 이후 어머니께서는 늘 장양을 애타고 그 여의사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장양은 어릴적부터 막연히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공부에 재미를 느끼던 중학교 때 확실히 의사의 꿈을 굳혔다.

재학당시 과수석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



를 가지고 있는 장양이지만, 장양의 집에는 의학적보단 소설책이 훨씬 많다. 이유인즉슨, 국어선생님이신 아버지와 예비국어선생님인 동생 탓에 집안 분위기는 다분히 문학적이란 것이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생활하다보면 자연히 문학에 친숙해지게 마련. 얼마전엔 동생의 문학적 무시발언에 불끈해 <한국문학소사>전집까지 읽었다.

국가고시가 끝난 후 한 달간은 의학서적에 파묻혀 지냈던 장양에게 해방과 자유의

나날이었다. 늦잠도 자고, TV나 비디오도 싹쓸이 보는, 보통 학생이라면 일상사인 일들에 장양은 행복하기만 했다.

지난 달 24일, 6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인턴과정을 밟게 되는 장양의 얼굴은 시작의 설렘으로 가득차 있다. 선배들로부터 인턴생활이 군대생활 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더이상 두 주간이나 계속돼 고통스럽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 졸업생들처럼 마냥 즐겁단다. 그렇지만 자신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깨가 무겁다.

발랄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 주위에 사람이 많은 장양은, “이번 일로 한턱 내라는 사람이 넘쳐 애먹었어요”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었다. <홍유리 기자>

교협회장 한한수 교수

제6대 교수협의회장에 경영학부 한한수교수가 선출되었다. 지난 2월 26일 12시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교수협의 회장단 선출에서 부회장은 서울캠퍼스 박이도(국문)교수와 수원캠퍼스 김광원(수학)교수가, 감사에는 법대 소재전 교수와 체과대 강동원 교수가 각각 선출되었다.

5일 신입생 진로특강

서울캠퍼스 취업정보실은 9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비롯한 전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신입생 2천1백96명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실시되는 진로특강에서는 대학생활에 임하는 정신차려 및 진로설정요령과 대책에 대해 3차에 걸쳐 강의한다.

또한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작성법 및 면접요령' '면접특강 및 열린 모의면접'에 대해서도 각각 4월과 9월에 강의할 예정이다.

일반휴학시 징병보류

올해부터 재학생 입영연기가 개선되어 일정한 자격자에 한해 일반휴학시에도 징병소집서 발부가 보류된다.

중전에는 군휴학시는 물론 일반휴학시에도 징병소집서가 발부되었으나 개선된 방안에서는 일반휴학(징병휴학, 가사휴학, 어학연수휴학)시 제한된 연령내 졸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징병소집이 보류된다.

또한 복수전공 재학자가 입영통지를 받고 복수전공 재학사유로 입영연기를 출원한 경우엔 제한연령(일반제일은 24세, 의학계열은 27세)내 졸업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입영연기가 된다.

태권도부 올림픽 참가

태권도부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기원에서 열린 '97국가대표선발전'에서 라이트급 심기선(태권 4)군과 헤비급 정명수(태권 4)양이 각 부문 우승을 차지하여 2천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

천문대 Hale-Bopp 혜성 발견

천문대 관측팀은 지난 달 20일 오전 5시경에 Hale-Bopp 혜성을 발견했다.

6인치 반사굴절망원경으로 15분 반자동 가이드로 촬영한 이 혜성은 현재 새벽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이 혜성의 촬영을 담당하던 동영상 파일로 편집할 예정이다.

급보다 밝은 1.9등급으로 3월 중순 이후에는 초저녁 서쪽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문대는 Hale-Bopp 혜성을 계속 관측하여 혜성핵의 Jet방출 현상을 수집하여 동영상 파일로 편집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천문대 관측팀>

올해 등록금 6.7%인상

총학, 강력투쟁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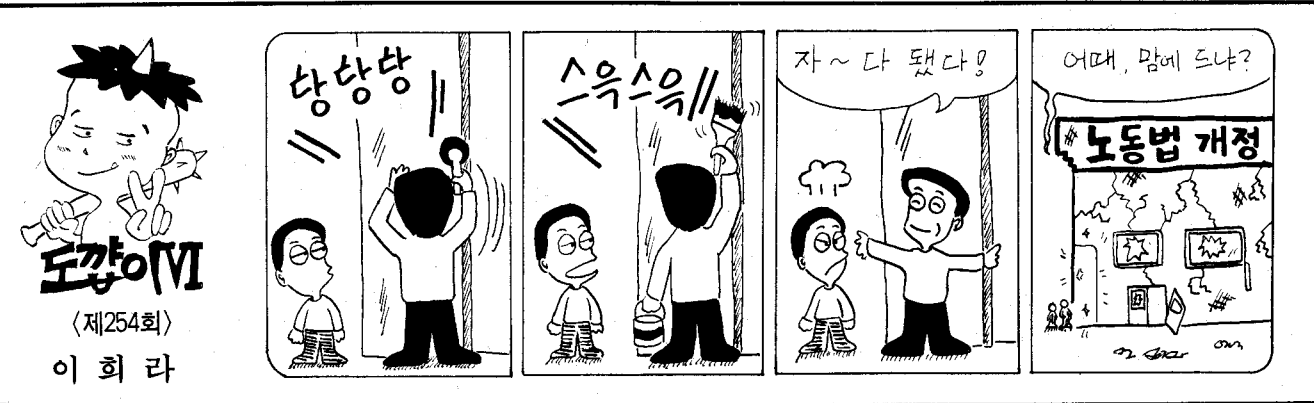
수원캠퍼스는 지난 1월 24일을 시작으로 총학생회와 학교간의 7차 실무자접촉을 통해 학교예산서의 등록금 6.7%확정 근거 등의 논의를 가졌다.

현재 학생회측의 요구안에는 △국가교육재정 GNP대비 5%확보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 △교양강의동 조기관공 및 단대요구안 수렴 △학부제의 효율화 등이 있다.

김세훈 부총학생회장은 “단순한 인상을 문제를 떠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학자 투쟁을 전개할 것”을 표명한 후 “개강 후 학부총회나 개강총회를 통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측 관계자는 “당초 12% 인상을 결정했으나 경제사정과 학부모 부담등을 감안하여 6.7%로 책정했으며 한자리수의 인상인 만큼 예년과는 다른 협상 양상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운 기자>



한국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

